

도시경영의 이념

교토의 도시 정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 시민과 시정이 서로 협력해 도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란다.

생활자를 중심으로 참여와 협동을 통해 지역주권 시대를 개척한다

- ◎ 지역주권 시대의 도시경영의 바람직한 모습은 국가의 권한과 재원의 기초자치단체로의 이양에 그치지 않고, 자치단체와 그 주인공인 시민이 자치 의식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참여와 협동에 의한 시정 운영과 도시 정비를 실현하는 것이다.
- ◎ 재정 문제와 저출산고령화, 지구환경 문제 등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들 교토 시민은 긍정적(미래지향)인 발상과 행동으로 이를 극복하고, 오랜 세월을 걸쳐 함양해 온 미의식과 장점을 활용해 생활자를 중심으로 한 미래상을 공유하고, 참여와 협동을 통해 실현을 향한 길을 찾아내고, 함께 땀 흘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미래를 개척한다.

교토의 미래상

교토의 미래상은 10년 후의 도시의 모습인가요?



맞아! 6가지 미래상의 실현을 목표로 다 같이 열심히 하자!

지구환경과 생활이 풍요롭게 조화를 이루는

'환경 공생과 저탄소의도시, 교토'

역사와 문화를 창조적으로 활용하고 계승하는

'일본의 마음을 느낄수 있는 국제도시, 교토'

전통과 지혜를 활용해 풍요로운 생활을 뒷받침하는

'환경과 사회에 공헌하는 산업을 육성하는 도시, 교토'

생명과 생활을 보호하고 안심·안전,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서로 돕는 자치가 숨쉬는 도시, 교토'

누구나 함께 배우며 성장하고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가 자라나는

'학습의 도시, 교토'

인간답게 활기차게 일하고 가정과 지역에서 윤택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진정한 워크라이프밸런스를 실현하는 도시, 교토'

지구환경과 생활이 풍요롭게 조화를 이루는 '환경 공생과 저탄소*의 도시, 교토'

우리들 교토 시민은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장기적(2050년까지)인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제조업의 전통이 뒷받침된 장인의 기술과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환경산업이 새로운 고용을 낳고, 대중교통을 중시하는 도시 정비가 살기 좋고 찾아가기 좋은 도시를 만들며, 산잔노모리와 도시의 녹음이 모든 시민들에게 운택함과 편안함을 주는 저탄소 도시 준비와 생활의 풍요로움이 조화를 이룬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교토인이 오랜 역사 속에서 길러 온 가치관인 '아깝다', '정리', '덕분에'의 정신을 존중하고 공유함으로써, 교통·도시 정비, 제조업, 직장, 주거와 생활 등 모든 장에서 시민 전체가 환경공생과 저탄소 도시 준비를 실천하고, 국내외의 지구온난화 대책을 선도한다.



* 저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것을 의미한다.

역사와 문화를 창조적으로 활용하고 계승하는 '일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국제도시, 교토'



우리들 교토 시민은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 함양해 온 풍요로운 문화와 깊이 있는 전통으로 가꾸어진 도시인 교토에 대한 보다 큰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 좋고 찾기 좋은' 국제문화관광도시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상들이 때로는 고집스럽게 지키고, 때로는 진취적 기상으로 길러 온 겹겹이 쌓여온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자연과 경관, 전통이 숨쉬는 생활방식 등, 일본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도쿄의 유무형 특성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고 차세대에 물려주도록 힘쓴다. 또한 이러한 교토의 매력을 평화와 함께 널리 세계로 발신하고 문화적인 교류를 심화시킨다.

'천년 후에도 활기차게 활약하는 도시' 로

기본계획심의회에서 저는 교토의 1300년 역사를 바탕으로, 향후 천년 후를 내다본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교토가 '천년 후에도 활기차게 활약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입장에서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와 협동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아 시민들이 힘을 합쳐 이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10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토시 기본계획심의회 회장
오이케 가즈오 씨
(제법법인 국제고등연구소 소장,
전 교토대학 총장)

전통과 지혜를 활용해 풍요로운 생활을 뒷받침하는 '환경과 사회에 공헌하는 산업을 육성하는 도시, 교토'

우리들 교토 시민은 환경 문제를 비롯해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로부터 수요를 발굴하고, 지금까지 함양해 온 가치관과 지혜 등을 활용해 세계시장을 고려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전통산업과 농림업을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동시에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창출한다. 이를 통해 풍요로운 생활과 사회를 뒷받침하는 경제기반이 확립된 도시를 목표로 한다.

저탄소 사회를 선도하는 산업,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건강·복지산업 등을 대상으로, 교토의 강점인 창업가 정신, 제조업 기술 및 지혜 등이 최대한 발휘되고 널리 국내외로부터 인재와 자금 등을 유치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누구나 함께 배우며 성장하고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가 자라나는 '학습의 도시, 교토'



우리들 교토 시민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을 서로 나누면서 교토와 일본, 나아가 세계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를 다같이 키우는 배움의 도시를 목표로 한다.

'대학의 도시 교토'의 도시 특성과 문화예술, 종교, 제조기술(장인의 기술부터 첨단기술까지) 등 진정한 기술을 풍부하게 접할 수 있는 강점을 살려, 평생 동안 누구에게나 다양한 배움의 기회가 제공되고, 그 성과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한다. 또 사회 전체가 어린이를 건강하고 풍부한 감성을 지닌 어린이로 성장시키고, 젊은이가 희망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며,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들과 경제, 학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적인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교토시 기본계획심의회 부회장
다테이시 요시오 씨
(교토상공회의소 회장)

교토 전체가 하나가 되어 미래의 교토를 만들자

지역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지역에 사는 사람, 일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의 새로운 니즈를 바탕으로 '원하는 모습(비전)'을 그리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획이 행정뿐 아니라 산업계, 문화·학술, NPO, 주민 등과 함께 만들어진 것은 교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이어질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토 전체가 하나가 되어 비전을 공유하고 연계하여 미래의 교토를 만들어 나갑시다.

생명과 생활을 보호하고 안심·안전,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서로 돕는 자치가 숨쉬는 도시, 교토'

우리들 교토 시민은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이 보호되고, 서로 존엄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도우며, 누구에게나 있을 곳이 있고, 사람 간의 관계가 풍요로워지며,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을 실감할 수 있는 도시를 추구한다.

육아, 교육, 복지, 방재, 방법, 도시 정비 등 다양한 면에서 지금까지 이상으로 참여와 협동을 추진하고, 안전망을 확실하게 지키는 '공조'와 자율적인 시민에 의한 '자조(自助)', 그리고 교토가 자랑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공조'의 힘을 더욱 더 높이기 위해 힘쓴다.



인간답게 활기차게 일하고 가정과 지역에서 윤택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진정한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실현하는 도시, 교토'



우리들 교토 시민은 인간답게 활기차게 일하고, 풍요로운 가정 생활을 가꾸며,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기여하는 동시에,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배우고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진정한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매료할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한다.

기업·사업자와 행정의 솔선해 안정적이고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노동 환경과, 육아, 간병 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동시에, 사회공헌의 장 및 기회의 확충을 도모하는 대응을 추진한다. 또 시민 개개인이 인생의 단계에 맞추어 취로에 의한 경제적인 자립, 보람찬 가정생활 및 친구 등과의 교류, 자기개발, 지역활동 참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힘쓴다.

어린이들이
그리는
교토의
미래



동물이 많아서
너무 좋아!

언제까지나 교토에서
'평화의 표시 다이몬지'
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보육원·유치원
부문 시장상
우에무라 게이타츠 어린이

보육원·유치원생,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교토의 미래를 그리는 그림 등을 모집한 결과 2,556점에 달하는 응모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부문
시장상 나카마 사야카 어린이